

재수성공담

2016 수능, 나는 믿었던 과학탐구의 배신으로 수능을 철저히, 완벽하게 망친다. 2016수능의 결과는 국어 5등급, 수학 3등급, 영어 4등급 생명과학 5등급, 화학 5등급. 나는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아 나는 재수 해야겠군' 그래서 정시 지원에 과감히 초상향을 지원했고 당연히 광탈했다.

나는 독학재수와 재수종합반을 고민하다가 재수종합반을 선택한다. 처음에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160만원이었다. 우리 집 수입의 2분의 1이 가까이되는 금액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지옥같은 1년을 다시 보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160만원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 뿐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부모님에게 학원비 결제는 내손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을 지갑에 보관할 생각이었다. 영수증은 재수기간 동안에 해이해지는 내 자신에게 초심을 찾게 해주는 가장 좋은 물건이었다.

3월달, 재수종합반이 개강했다. 재수종합반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 유머러스했다. 나는 국어가 그렇게 재밌는 과목인지 20살이 되서야 처음 깨달았다. 재수초기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의지가 넘쳤고, 게다가 재밌는 수업이 있어서 '재수도 할만한 것이군' 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안해오던 공부할 갑자기 하니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12년동안 의무적으로 놀았던 쉬는시간에는 전시간 수업복습을 했고, 점심시간에는 영어단어 외우기와, 앞시간 수업 복습을 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갑자기 귀에서 삐소리가 나곤 했고, 심장쪽이 가끔씩 따끔거리기도 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었다. 그러나 젊음이 약이라고 이런 것들은 금방 괜찮아 졌다.